

野 잠룡들 쫓불 들고 탄핵전선 전면에

조기 대선국면 지지층 결집...文·安 국회 앞 집회 참석

안희정·손학규 등 DJ 노벨상 수상기념식서 “정신 계승”

아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 D-데이를 하루 앞둔 8일 쫓불을 들고 탄핵전선의 전면에서 나섰다.

탄핵 정국의 종료와 함께 조기대선 국면 돌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쫓불 민심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의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등 아권의 기존 대권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점이 아권 주자

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아권의 대선 주자들은 이날 밤 63빌딩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6주년 기념식에 대거 참석했다. 아권의 정신적 지주인 김 전 대통령이 평생 과제로 삼은 민주주의·남북관계·서민경제를 강조하고 ‘DJ 리더십 계승’을 내세우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

겸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론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시민과 함께 쫓불을 들었다. 문 전 대표는 본격적인 탄핵 국면 전까지는 주제별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했지만 이후에는 시국대회→주말 광화문 등 쫓불집회→국회 앞 필리버스터 연설→국회 앞 쫓불집회 등으로 참여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용산역 광장에서 29번째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오후에는 야당이 벌인 탄핵안 보고 과정을 지켜본 뒤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서 열린 국민의당 쫓불집회에도 참여했다.

박 시장도 이날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라는 이름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토론회를 열어 대통령 퇴진을 외쳤고 이날 초청 인사로 이재명 시장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안 지사는 이날 상경해 오전에는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하고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저녁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민주당 탄핵버스터’에서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당 쫓불집회에 동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담담한 청와대

“차분하게 대처”...가부따라 벌리투쟁 등 시나리오 무성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청와대는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담담한 분위기를 지켰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한 해법을 밝힌 뒤부터 이날까지 침묵했다. 애초 예상했던 4차 담화 발표나 별도의 의혹 해명 기자회견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TV로 시청했고, 관련 보도도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에 대해서는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대응하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친박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질서있는 퇴진’을 호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 참모는 “그런 것은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표결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운명은 탄핵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이 중지되지만 하야 등 중도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 의혹 규명을 위한 벌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야권은 탄핵안 가결 이후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일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탄핵안 부결시에는 박 대통령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내년 4월 퇴진과 6월 조기 대선을 골자로 한 ‘질서있는 퇴진’을 실천에 옮기는 방안과, 쫓불민심의 하야 요구를 일축하고 임기 끝까지 마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민심이 역주행하는 임기 완수 시나리오를 엮을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질서있는 퇴진의 출구를 열기 위해 4월 퇴진을 거듭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민심과 정면 대결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탄핵하라” 청년 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한 회원이 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허’ 짚린 김기춘

모르쇠 일관하다 박영선 의원이 영상 보여주자 “착각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선 문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후보 검증 정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정운회 문건’에 최씨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서야 “착각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수심차레에 걸쳐 최순실과의 관계는 물론 이를 자체도 모른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2004년 김 전 실장이 한나라당 법률자

문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후보 검증 정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정운회 문건’에 최씨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서야 “착각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그는 “최순실이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면서 “이제 최씨의 이름을 못들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최씨와 접촉은 없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슈퍼 파워’ 최순실

차은택·고영태 “권력 서열 1위”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의 ‘막강 파워’는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차은택 광고 감독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은택은 청문회에 출석해 권력 서열에 대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이라는 것이냐고 하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순실씨의 측근인 고영태씨 역시 ‘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는 하 의원의 질문에 “예”라고 수긍했다. 이어 “2014년 정운회 문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이였다.”고 말했다.

안희정 “대선 위해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하나...대권후보로 정권교체 자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내년 대선에서의 국민의당과 연립정부 구성 여부와 관련, “연립정부보다는 당 대 당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치적 뿌리가 같다. 김대중·노무현 정신은 하나다. 따로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민주당의 젊은 지도자로 성장해왔다”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정국에서의 아권 주자들의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탄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라며 “고춧가루 뿌리고 양념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전 가능하면 조미료 덜 쓰며 건강한 요리를 하고 싶다”고 이재명 성남시장 등과의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다.

친노 세력과 호남 민심의 반목에 대해서는 “지난 87년 김영삼 체제 때 호남을 고립시키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왜곡됐다”며 “광주 항쟁과 대구의 2·8 항쟁, 부마항쟁은 한 몸이다. 정치 지도자들이 심각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이를 풀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 요구다”고 강조했다.

여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대해 “정책과 비전보다는 UN 사무총장의 타이틀이나 유명세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치인은 신의가 있어야 한다. 반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호남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 “지역에서 젊은 인재들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치인들도 지역 구도에서 벗어나 국가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일부 호남 정치 선배들이 ‘호남 정치 복원’을 주장하는데 이는 호남을 오히려 지역적 프레임에 갇히게 한다”는 쓴소리를 했다.

안철수·이재명 주말 전북서 시국강연회

아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들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 주말 전북을 찾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10일 ‘세정치 디딤돌’ 창립기념으로 전주교대에서 ‘대한민국이여 일어서라’를 주제로 탄핵 정국과 관련한 시국강연회를 연다. 강연에 앞서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최근 지지도가 급상승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11일 오후 익산의 원광대 학생회관과 군산의 근대역사관에서 각각 시국강연회와 민주당원 간담회를 한다.

시국강연회에는 전주교 10여개 성당 신부와 신자를 비롯해 일반인 등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p>경매</p> <p>병원</p> <p>감정가 140억, 최저가 78억 목포시 석현동 / 4층 / 대지 3659평, 건물 2522평</p>	<p>경매</p> <p>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 광양시 봉강면 / 9층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교육 연구 시설</td> <td style="width: 50%;">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1억 3천만</td> </tr> <tr> <td>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td> <td></td> </tr> <tr> <td>가스충전소</td> <td>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td> </tr> <tr> <td>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차기 / 3기 6구</td> <td></td> </tr> <tr> <td>수익형 상가 건물</td> <td>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td> </tr> <tr> <td>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td> <td></td> </tr> <tr> <td>숙박시설</td> <td>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td> </tr> <tr> <td>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td> <td></td> </tr> </table>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1억 3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차기 / 3기 6구		수익형 상가 건물	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	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		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1억 3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차기 / 3기 6구																										
수익형 상가 건물	감정가 10억, 최저가 10억																									
동구 금남로 / 총 4층 / 대지 118평 건물 305평 / 중심상업지역 / 금남로4가역 부근																										
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p>매매</p> <p>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 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p> <p>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 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상가</td> <td style="width: 50%;">매매가 17억</td> </tr> <tr> <td>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유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td> <td></td> </tr> <tr> <td>연립주택 부지</td> <td>매매가 12억</td> </tr> <tr> <td>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점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td> <td></td> </tr> <tr> <td>전원주택</td> <td>매매가 10억</td> </tr> <tr> <td>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td> <td></td> </tr> <tr> <td>숙박시설 부지</td> <td>매매가 8억 5천만</td> </tr> <tr> <td>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td> <td></td> </tr> <tr> <td>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td> <td>매매가 5억 5천만</td> </tr> <tr> <td>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td> <td></td> </tr> <tr> <td>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td> <td>매매가 4억 3천만</td> </tr> <tr> <td>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점 / 월출산 조망</td> <td></td> </tr> </table>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유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점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매매가 10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점 / 월출산 조망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유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점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매매가 10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7구 / 공실없음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점 / 월출산 조망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